

2005년도 8월
석사학위 논문

판화기법에 반영된 심리 표현

Aesthetic Expression Reflected in Woodcut Techniques

-본인 판화작품을 중심으로-

- Centering on the Works of My Own Creation -

조선대학교 대학원

순수미술학과

안진성

2005년도 8월
석사학위 논문

판화기법에 반영된 심리 표현

Aesthetic Expression Reflected in Woodcut Techniques

-본인 판화작품을 중심으로-

- Centering on the Works of My Own Creation -

2005년 8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순수미술학과

안진성

판화기법에 반영된 심리 표현

Aesthetic Expression Reflected in Woodcut Techniques

-본인 판화작품을 중심으로-

- Centering on the Works of My Own Creation -

지도 교수: 김 익 모

이 논문과 석사학위 청구 개인전 도록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순수미술학과

안 진 성

인 준 서

안진성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2005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이 논문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2001년 이후 본인이 제작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나타냈으며 각 작품에서 표현했던 판화적 기법과 조형적 이미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그 형성과정 및 제작과정을 논한 것이다.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작품세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사회의 물질 문명과 기계 문명 사이에서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규범과 규칙 그리고 절대자 앞에서 발생하는 강박관념 압박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소외 되어가는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을 꽃이나 화초들의 변형된 모습으로 표현 규칙적인 절대자의 기동표현과 강, 약의 화면분할을 통하여 현대인의 심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 11점을 대상으로 사진 도판을 제시, 설명하여 구체적으로 그 표현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ABSTRACT 1

I. 서 론..... 3

II. 본 론

1) 작품에 의해 표현된 현대인의 심리표현..... 5

2) 목판화의 제작 활용 방법..... 6

3) 사진기법을 이용한 표현..... 8

4) 작품 설명..... 10

III. 결 론 25

작 품 목 차

[작품 1] 무의미한 변화 - 0101	90×130cm , 목판화 2001	10
[작품 2] 무의미한 변화 - 0102	100×140cm , 목판화 2001	11
[작품 3] 무의미한 변화 - 0103	90×90cm , 목판화 2001	12
[작품 4] REMEMBER - 0402	60×90cm , 목판화 2004	14
[작품 5] REMEMBER - 0401	60×90cm , 목판화 2004	15
[작품 6] SECRET GARDEN - sg 0501	135×95cm , 목판화 2005	17
[작품 7] SECRET GARDEN - sg 0502	95×65cm , 목판화 2005	18
[작품 8] SECRET GARDEN - sg 0516	디지털프린트, 모노타이프 , 목판화 2005	20
[작품 9] SECRET GARDEN - sg 0511	세리그래피 , 수성물감 2005	21
[작품 10] SECRET GARDEN - sg 0513	세리그래피 , 수성물감 2005	22
[작품 11] SECRET GARDEN - sg 0514	세리그래피 , 수성물감 2005	23

ABSTRACT

Expression of Artist's Mentality Reflected in Printmaking Technique

An, Jin-Sung

Major: Printmaking Media, Dpt. of Pure Fine Arts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Chosun University

This thesis is written to apply for a master's degree and seeks to discus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my intentions I tried to depict in the works produced since the year of 2001. Furthermore, printmaking techniques, the symbolic meanings of formative images, their formulations and printmaking processes are dealt with.

My works tried to describe the anxiety of modern people who have no choice but to go through alienation due to paranoia, psychological pressure, stress, etc. All this mental trouble comes from regulations, rules and other absolute beings that humans have to endure

irrespective of their volition, while they exist in the whirlwind of modern material and mechanical civilization which have made great advances.

The transformed images of flowers and plants are intended to reflect the mental state of modern humanity. The absolute beings expressed in regular columns and the partition of the canvass into strength and weakness try to depict agonizing modern people.

In addition, the presentation of 14 photos of my works and illustrations will help explain the expressions so that readers may appreciate my intentions in a more concrete manner.

I. 서 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제작한 나라 팔만대장경을 제작한 나라, 판화가 인쇄의 기본이라면 우리나라는 판화의 최고 기술과 그 힘을 가진 나라였다.

우리의 판화 예술이 급속하게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고판화 분야의 강국 이었으므로 오랫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전통이 현대 판화 분야에서 그대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본인은 이제는 하나의 예술 장르로 자리 잡아가는 판화의 예술성을 인식하고 정통적인 목판화 기법과 사진 전사 기법을 이용한 디지털 프린트와 세리그래피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중에도 본인의 작업은 목판화를 이용한 작업이 주를 이루는데 목판을 이용한 작업을 주로 하는 것은 목판이 주는 자연스런 느낌과 다른 기법에 비해 다양한 색상과 화면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질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본인의 목판화 작품이 가지고 있는 판화에 대한 개념과 기법적으로는 소멸 목판화를 이용한 화면구성과 그라이데이션기법 그리고 목판을 이용한 다양한 질감표현과 효과에 대해 논할 것이며 사진 전사 기법을 이용한 디지털 프린트나 세리그래피를 작업에 응용하여 회화적 효과를 주는 방법과 정통 목판과의 혼합작업 방법을 설명 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식물이나 화초 이미지로 나타낸 현대인들의 불안 심리와 소외된 인간상의 표현방식과 내용을 논하였다. 더불어

2001년 이후부터 이번 개인전 사이에 제작한 11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도판으로 제시하고 설명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을 통하여 본인의 작업 방향과 예술관 그리고 조형관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작품에 표현된 현대인의 심리 표현

본인은 작업의 개념을 중시하고 그 아이디어를 일상 생활, 사회 생활 속에서 찾는다. 어릴 적 어머니가 화초를 좋아하여 집안이 온통 꽃으로 가득한 기억이 있다. 식물은 인간이나 동물처럼 공격적이지 않고 수동적 이어서 언제나 편안하고 부담 없는 대상이다. 따라서 내가 식물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사회 현실에 대한 방어기제이기도 하고 내가 안주하고 싶은 유토피아이기도 하다.

오늘 날 현대 사회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물질문명과 기계 문명 사이에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규범과 규칙, 그리고 절대자 앞에서 발생하는 강박 관념, 압박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불안한 심리로 병들어 가고 있다. 현대 사회 속의 현대인들은 개체들이 모여 스스로 조직화하는데 이것은 어떤 규칙 속에서 능률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거대화도 이것 또한 인간 소외의 근원이 된다. 그것은 관료조직을 보면 알 수 있듯 조직이 거대화되면 조직 자체의 요구에 의해 조직체의 공동의 목표만 남는다.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규범화되고 결국 조직이나 권력자 앞에 개인은 무력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대하고 고도화한 조직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능률이라는 효율

성 앞에 소속 개인들을 개성 있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기계의 부속품처럼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은 창의적 개성이 존중되는 개인보다는 능률성, 효율성이 앞선 기계적인 규칙이나 원칙이 우선된다.

본인은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을 자연의 산물인 꽃이라든가 화초들로 표현, 고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화려한 장식의 기둥아래 장식적이거나 또한 시 들어가거나 변형된 인간의 모습으로 대변한다.

2) 목판화의 제작 활용방법

판화(版畫, Print making)는 말 그대로 판그림, 즉 찍어낸 그림이며 복수 예술이다. 목판화(木版畫, Wood Cut)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판화로 깎아내서 표현하고 동판화(銅版畫, Intaglio Printing)는 부식하고 굽어내어 풍부하고 섬세한 톤의 표현과 복잡하고 치밀한 제판과정으로 인해 특별한 장인 기질을 요하는 특성을 지닌다. 석판화(石版畫, Lithograph)는 물과 기름의 반발 작용을 이용하는 인쇄 방법으로 화학적 변화에 의한 판화이며 실크스크린(孔版畫, Silkscreen, Serigraph)은 빛을 이용한 감광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진다. 각 판화 기법마다 독특한 질감과 표현이 나타나며 여기에 장인적 기질이 더해질 때 판화의 특수성에 그 매력이 가미된다.

본인은 판화에 입문하며 여러 기법을 접하였지만 전통 판화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연스러우며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목판화 작업에 주력하게 되었

다. 목판에 그림을 그리고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조각도로 깎아 불룩한 면에 잉크를 칠해 찍어내는 방법이다.

나무의 자연스러운 느낌이나 칼의 쓰임새에 따라 담백하고 강한 흑백의 표현, 또는 소멸 법에 의한 다양한 칼라를 연출할 수 있는데 본인 작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작업이 한판 다색법인 소멸목판화이다.

소멸법은 하나의 이미지를 판 위에 새겨 종이에 찍어내고 다시 같은 판 위에 다른 이미지를 새겨 찍어내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서로 다른 이미지들이 겹겹이 찍히면서 드러나는 중첩 효과로 인해 목판화의 다른 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도감 있고 회화에서 느낄 수 있는 두터운 마티에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화면을 얻을 수 있다.

본인의 소멸 목판화 작업에는 판위에 젯소를 칠하고, 기타 재료를 붙이거나 긁어내어 목판 질감과의 차이를 대비시켜 화면의 부분적 특징을 잡아 나타낸다. 화면의 질감에서 느껴지는 독특함을 더욱 회화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잉크에 들가루나 탄산 마그네슘을 섞어 특징에 따라 두텁게 바르고 얇게 바르고를 반복하면 두터운 마티에르의 효과로 회화적인 느낌을 많이 부각시킨다.

본인의 목판 작업은 조각조각 형태를 나누어 부분적으로 찍어내어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공간감과 입체감을 보이기 위해서이며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대비되는 인공적인 색채프리즘을 이용하기 위해 그라데이션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라데이션기법은 잉크대에 여러 색상의 잉크를 만들어 정적이며 관조적인 화면 구성을 원하는 본인에게 꼭 필요한 기법이다.

3) 사진 기법을 이용한 표현

지금까지 목판화 작업을 주로 해왔지만 작품 주제인 「SECRET GARDEN」의 또 다른 이미지를 찾기 위해 최근 들어 사진 기법을 이용한 실험작들을 시작했다.

현대판화에 나타난 기법의 확대는 사진 전사기법, 레이저 커팅 그리고 각종 캐스팅 기법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형으로는 전통적인 판법 내에서 그 기법이 다면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광의로는 전통적인 판법과 사진이 결합한 형태의 사진전사기법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판화는 물론 회화 일반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 생리상 판화와 사진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친근한 관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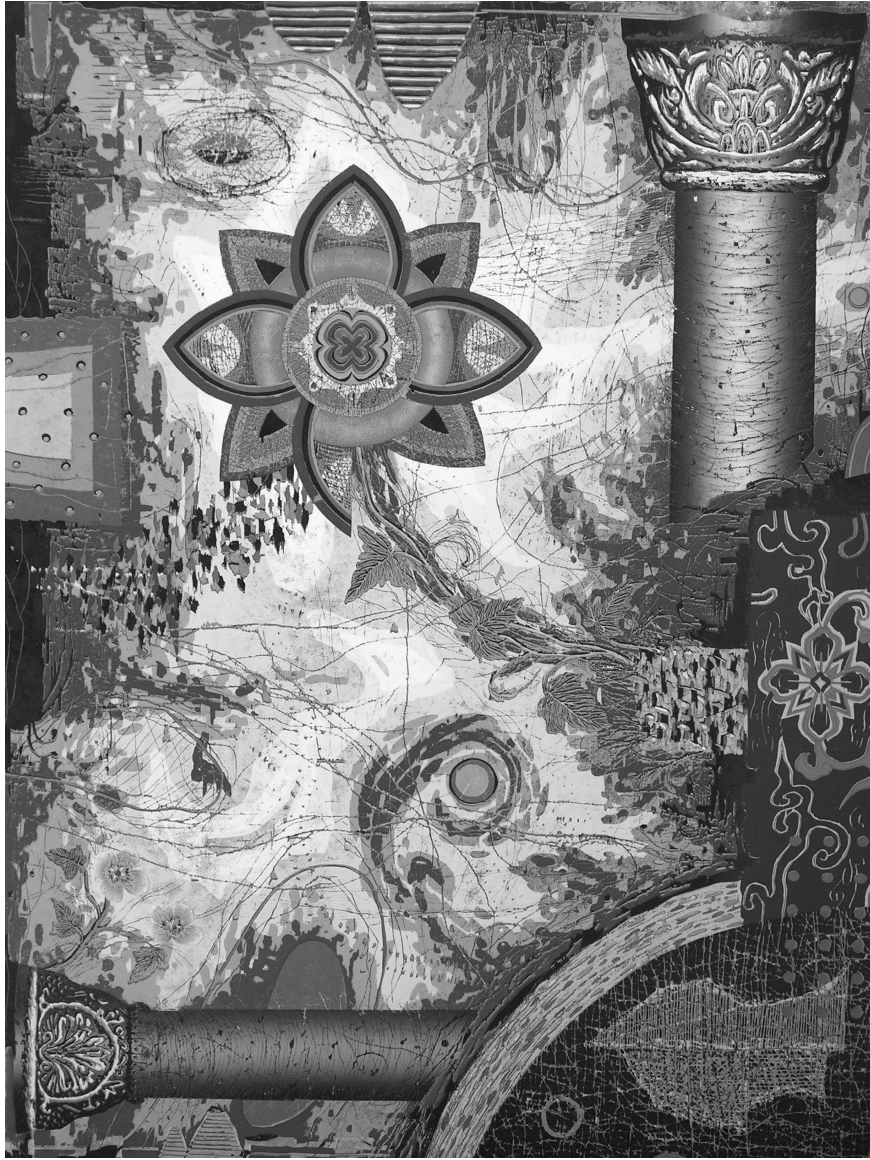
본인은 실크스크린의 전통적인 판종에 사실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 사진기법을 이용한다. 실크스크린은 미세한 실크천에 잉크를 밀어 넣어 찍은 방식을 택한다. 이미지의 제판과정은 실크천을 씌운 스크린 판에 감광액을 바른 다음 투명한 재질(투명한 테이프, 프레판지, 필름)위에 그림 그린 것이나 복사한 것을 실크판 밑에 놓고 적당히 빛을 투여(노광)하면 그림 그린 부분이 나 복사한 것의 검은 부분은 빛을 받지 못하여 감광액이 녹아내리면서 구멍이 뚫린다. 나머지 부분은 빛을 받기 때문에 감광액이 굳으면서 실크천을 막아 버리게 된다. 프린팅을 하면 감광액이 묻은 부분은 인쇄되지 않고 구멍이 뚫린 부분만 잉크가 흘러내리므로 이미지와 똑같이 프린팅 된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을 표현 할 수 있지만 본인은 사진이미지를 단색으로 프린팅을

하여 수성물감을 사용하여 여러 장의 같은 프린팅을 각각 다른 색으로 표현
회화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또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큰 꽃들은 컴퓨터로 사진 이미지를 조합 변형하
여 판화지에 전사하는 디지털 프린트 기법을 이용한다. 디지털 프린트는 아
무래도 회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판을 긁거나 파내서 메디움으로 잉킹하
여 프린트된 종이 위에 프레스로 압력을 강하게 주어 찍어 내어 목판화의 질
감을 각인 시킨다.

파고 긁어낸 목판화의 틈들이 들어가 보임으로 찍힌 부분과 찍히지 않는 부
분들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내어 회화적인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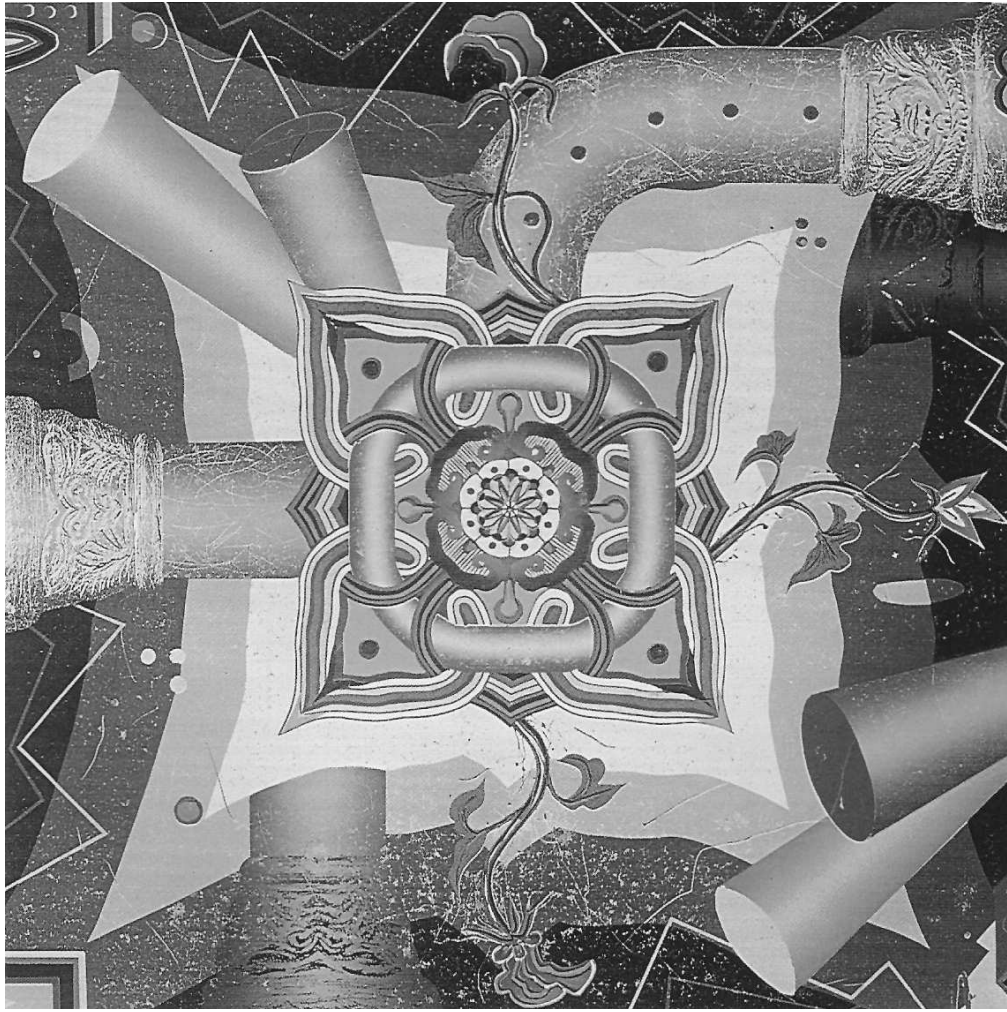
4) 작품 설명



[작품 1] 무의미한 변화 01-01 90×130cm 목판화 2001



[작품 2] 무의미한 변화 01-02 100×140cm 목판화 2001



[작품 3] 무의미한 변화 01-03 90×90cm 목판화 2001

[작품 1] 무의미한 변화 01-01 90×130cm 목판화 2001

[작품 2] 무의미한 변화 01-02 100×140cm 목판화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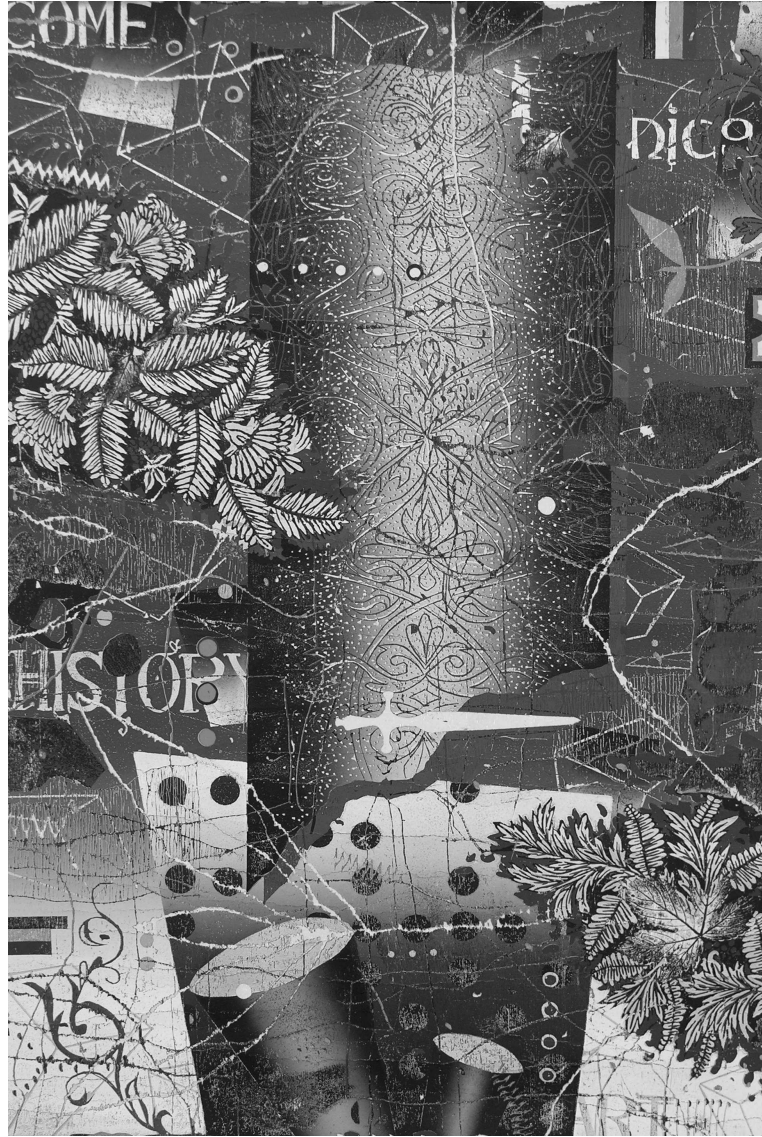
[작품 3] 무의미한 변화 01-03 90×90cm 목판화 2001

이들 작품은 이전의 작품에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한 작품으로 기둥과 변형된 꽃 등이 처음 등장한 작품이다.

기둥은 절대 권력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감시하고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현대인을 짓누르는 알 수 없는 힘이며 스트레스, 압박감, 강박관념으로 인해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조직화된 사회에서 기계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정형화되고 기계화되는 꽃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두터운 마티에르를 강조하기 위해 이들 작품에서는 마그네슘을 잉크와 섞어 사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판을 조각내어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 기둥의 인공적인 프리즘의 효과와 빛에 대한 형식 실험을 하였다. 「작품 2」에서는 나뭇잎을 건조 목판에 붙여서 찍어내는 플라그래프(collagraph) 기법을 사용했다.

그동안 출품하지 않았던 공모전 출품을 위해 프레스에서 찍어내기 힘든 큰 작품들을 제작했다.



[작품 4] REMEMBER — 0402 60×90cm 목판화 2004



[작품 5] REMEMBER - 0401 60×90cm 목판화 2004

[작품 4] REMEMBER - 0402 60×90cm 목판화 2004

[작품 5] REMEMBER - 0401 60×90cm 목판화 2004

이 작품은 구도나 전체적 화면 구성이 절대 권력자인 기등을 중심으로 크게 분할된다. 시기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현실에 대한 증압감이 아니었나 싶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대체로 모노톤 경향을 많이 띄고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기호로 나타내고 있다.

작품의 기법에도 좀 전에 비해 잉크에 탄산마그네슘이나 돌가루 등의 희석된 양이 많아 종이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만큼 여러 번 판을 찍어냈다. 색의 변화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멸목판 기법으로 자르고 긁고 잉킹하고를 20번 정도 반복해 찍어낸 작품이다.

일본의 다마미술대학을 다녀와 그곳의 환경과 현대 판화미술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에 약간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작품으로 작품에 기등을 주제로 시작한 처녀작이다.



[작품 6] SECRET GARDEN - sg 0501 135×95cm 목판화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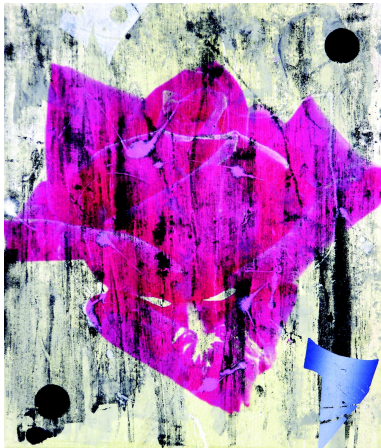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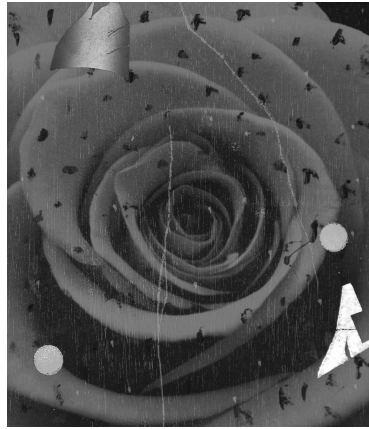


[작품 7] SECRET GARDEN — sg 0502 95×65cm 목판화 2005

[작품 6] SECRET GARDEN – sg 0501 135×95cm 목판화 2005

[작품 7] SECRET GARDEN – sg 0502 95×65cm 목판화 2005

가장 최근에 제작한 작품들이며 기둥과 성벽의 장식 표현을 위해 치과용 소형 드릴을 이용하여 문양들을 조각하였다. 문양의 표현은 화판에 문양을 하나하나 그린 다음 다시 그것들을 조각하여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작품을 완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 장식문양과 벽면의 효과를 위해 굵어내고 파내기를 수 차례 한 다음 탄산마그네슘과 돌가루를 잉크와 희석하여 얇게 두텁게를 반복하여 10여 차례 겹겹이 중첩되게 찍어냈다. 전체적으로 20여 차례 이상 판을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판을 종이에 잘 맞추어 찍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잉크가 많이 올라 갈수록 재료에서 느껴지는 회화적 두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기둥의 양감 표현을 위해 그라데이션 기법 사용 때 색의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 각 면들을 조각조각 나누어 부분에 따라 따로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어두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함을 흑·백 대비로 나타냈다. 침울하게 보이는 식물과 변형된 꽃은 우리 현실의 반영이다.



[작품 8] SECRET GARDEN sg - 0516
디지털프린트, 모노타이프 목판화 2005



[작품 9] SECRET GARDEN sg - 0511 세리그래피 수성물감 2005



[작품 10] SECRET GARDEN sg - 0513 세리그래피 수성물감 2005



[작품 11] SECRET GARDEN sg - 0514 세리그래피 수성물감 2005

[작품 8] SECRET GARDEN sg - 0516

디지털프린트, 모노타이프 목판화 2005

[작품 9] SECRET GARDENsg - 0511

세리그래피 수성물감 2005

[작품 10] SECRET GARDEN sg - 0513

세리그래피 수성물감 2005

[작품 11] SECRET GARDEN sg - 0514

세리그래피 수성물감 2005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사진기법을 이용한 작품이다.

「작품8」은 판화지에 사진을 전사하여 그 위에 모노타이프 기법을 이용해 이미지의 변화를 시도하고 목판을 긁고 결을 내서 이미지가 희미하게 사라지는 듯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얇게 찍어 낸 것이다. 부분적으로 목판을 조각내어 찍어 내어 단순한 이미지에 포인트를 주었다.

「작품9」 「작품10」 「작품11」은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해 꽃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찍어낸 다음 수성 물감으로 각기 다른 색과 분위기를 만들어 낸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전시장에서는 같은 크기의 추상화적인 목판작품과 연결하여 대비시켜 변화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Ⅲ. 결 론

십 여년이 넘도록 판화를 다루어 온 본인에게 아직도 판화라는 장르는 늘 새롭고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 온다.

하지만 판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 새로운 표현과 방식들을 찾는 것들에 너무 소홀 했던 것 같다.

목판화 하나만으로도 아직 연구하고 실험할 기법이나 방법들이 너무도 많으며 회화에 판화기법을 도용 하는 것 또한 본인이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통적인 목판화를 주로 작업해온 본인으로서 정통적인 목판화 기법을 고수하며 현대적인 판화기법의 하나인 사진 전사 방법을 이용 혼합하여 나타낼 수 있는 방법과 판화로 표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풍부한 색채와 마티에르의 표현이 가능한 회화의 캔버스나 한지에 전사하는 새로운 표현 방식들을 앞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내용적으로는 민초의 꽃 이미지나 권력자의 기둥이나 문양들이 복제의 개념으로 너무 복합적으로 등장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소리가 약해지기도 하며, 또 하나의 개념의 축인 시간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